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❶ 불교미술의 이해와 감상법은



▶**김선희 교수는**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학사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서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상해국제미술제특별상(2015)을 비롯해 다수의 해외 미술제에서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올해의 작가 100인전 대상, 2021년에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인도 뭄바이 대학교,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서울 수미정사, 창원 봉국사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현재 동국대 연구교수로 활동 중이다.

부처님 말씀 어떻게 시각화됐을까?

종교와 예술은 서로 간에 그 어떤 내재적 연결고리가 있어 분리될 수 없는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인류의 의식이 오늘날과 같이 각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총체적 성격의 시대 및 사회에서는 종교와 예술 등의 이념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혼용의 상태였다. 종교의 기능은 인간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예술 역시 인간 본질을 살펴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함이니 같은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종교와 예술의 결합은 바로 종교 내부의 1차적인 성스러움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종교 외부의 표현 매체를 통해서 표출해내는 데서 시작된다. 종교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량을 과학적 언어로는 설명해 낼 수 없으며, 그렇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통상적인 언어 문자로도 다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술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만약 예술이 없다면 종교를 현현(顯現)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종교가 없다면 예술은 곧 그것의 가장 유력한 표현 내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종교와 예술은 상보상생(相補相生)의 관계에 놓여있다.

불교는 바로 붓다의 가르침으로 그 궁극적 이상은 개인의 인격 완성인 '깨달음'과 아름다운 세상인 불국정토의 구현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구보리를 통한 자리(自利)의 충족과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이타행을 실현하는데 있다. 붓다는 이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평생을 중생교화를 위한 설법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붓다 열반 후에는 그 생동감 있는 설법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제자들은 당시를 회상해 경전으로 엮어낸다. 이후 이렇게 엮어진 경전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예술 형식을 통해 표현해내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미술이 출현한 계기이다.

불교회화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조각과 건조물의 성립 시기와 거의 같다고 추측하지만, 초기의 불화로서 남아 있는 예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초기의 불교사원에 불화들이 그려진 사실을 여러 경전서 발견할 수 있다. 즉,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화는 기원전 2세기경에 그려진 아잔타 석굴의 벽화들이다. 그러나 카시미르를 중심으로 성립된 부파시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란 경전에 의하면 인도 최초 사원인 사위성(舍衛城)의 기원정사에 불전도(佛傳圖), 본생도(本生圖) 그리고 야차(夜叉) 등 넓은 의미의 벽화가 그려졌다는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기원전 3세기에는 어떠한 종류 형태로든지 불화가 그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곳은 부처님이 24년이나 머무신 〈금강경〉의 무대이자 왕사성 죽림정사와 함께 최초의 불교사원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7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부처님 모습 등 불교적인 소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의 제작은 그 이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교는 출현 초기부터 예술과 결합해 붓다의 말씀 즉, 추상적인 경전 문자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내는데, 우리는 이를 '경변(經變)' 혹은 '변상도(變相圖)'라 부른다.



인도 미디아 프라데시에 있는 석굴의 '스투파 공양' 작품. 1세기 초에 조성됐다.
사진=쇼가쿠간 발간 〈세계미술대전〉中



인도 나식(Nāsik) 석굴사원 제18굴 내부 도상. 1세기 사타바하나 시대에 조성됐다.
사진=김선희

'변상도'를 그리는 목적은 예술 형식을 빌어 신도들에게 불교이념을 선양하고 어려운 불교 교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함이었다. 만약 '변상도'가 출현치 않았다면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야만 불교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변상도'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도 어려운 경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상도'는 그 출현 이후 각 시대 마다 그 시대의 불교 사상을 잘 반영한다. 남북조시대의 경변은 소승 경전을 다채롭게 그려내는데, 자아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있으며, 내용은 본생경변상, 불전 고사가 많고 졸박(拙朴)한 양식으로 표현되었다. 수당 이후 대승사상이 성행하면서 많은 화사들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풍부하고 변화가 다양하다. △유마힐경변 △본행경변 △금강경변 △금광명변경 등이다. 이는 중국 미술사상 아주 특수한 변화의 시기이다.

종교와 예술은 '상보상생' 관계

불교미술, 경전 전하는게 목적

초기부터 나타난 예술 '변상도'

상징 언어 알아야 올바른 이해

일반적으로 변상도를 벽화 표현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당대에 아주 성행하였다. 이외에도 입체적 표현의 조소 작품도 있다. 양송(兩宋) 이후에는 자수(刺繡), 견화(絹畵) 등 다양하다. 문헌상에는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에 '경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으며 그 밖의 서적에서 '경변'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앞으로 본 연재에서는 이와 같은 '관경변상도'를 그 출현서부터 변화 발전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종교와 예술적 측면을 함께 어우러 그 출현의의와 심미적 가치를 밝혀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 어려운 경전 내용을 어떻게 '변상도'란 시각예술로 표출해내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상징의 시각화

미술의 표현은 원래 감각적 표현에 속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스럽고 존엄한 내용까지도 시각화해 드러낸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가시적 형상표현에 있어서 곤란함에 이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성품, 덕성 혹은 붓다나 신의 성스러움 등의 추상성이 그러하다. 즉, 구체적 형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표현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어떤 가시적인 것을 상징해 성품, 덕성 등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을 표현하기로 약속을 정했다.

이런 방법이 종교미술 표현에 응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약속과 규정을 불교에서는 도상 '의궤(儀軌)'라 하며 이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도상학(圖像學)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 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직접 관조하면서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미술 이해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특수한 미술 작품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의 형상화를 위한 특별한 약속이나 방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종교미술의 정확한 감상을 위해서 감상 이전에 우선 미술표현의 의도(意圖) 즉, '상징 언어' '도상의 의의'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불교 미술사에 있어서 '무불상시대'의 불전도(佛傳圖)에서는 붓다의 존용(尊容)은 신성불가침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감히 표현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붓다의 존재나 행위를 기호나 징징적인 물건으로 표현했으므로 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시기의 불교미술 작품의 주제, 내용 혹은 형식을 파악하기 어렵다.

스투파 · 불족적 등 표현한 무불상시대

그럼 당초의 상징을 '스투파 공양'(사진①)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면, 의자와 한 그루의 나무가 보인다. 이 나무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된 순간 그 아래 앉아 있던 나무인 보리수를 표현한 것이다. 보리수 앞 의자는 금강좌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앉았던 자리이다. 또한 탑문 · 난순 · 기둥 등에 표현된 붓다의 전생 설화를 묘사한 본생도에는 주역인 붓다는 일체 등장하지 않고 다만 불좌나 나무 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붓다를 신성시해 다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 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설(說)과, 붓다의 모습을 감히 형상화시키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어 불신형상화(佛身形像化)를 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리고 금강좌 아래에는 불족적(佛足跡) 즉, 붓다의 발자국이 표현되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붓다가 그곳에 있음을 불족적을 통해 나타냈다.

그 밖의 상징으로 법륜(法輪)과 탑(塔)을 들 수 있는데, 법륜은 붓다의 가르침을 수레바퀴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며 불탑은 즉, 스투파(사진②)라 불리며 붓다의 사리를 봉안한 무덤이다.

이와 같은 상징물로써 붓다의 존재를 대신한 것은 붓다 재세 시부터 기원후 1세기 중엽까지 500~600년 동안 철저히 지켜온 약속이었다.

기원후 1세기 중엽 인도 서북부 간다라 지방을 알렉산더가 점령함으로써 인도와 그리스의 혼용미술이 출현했다. 소위 그리스 양식의 불교미술이 성행했는데, 이때 그리스의 신상을 모방한 불상 즉, 사람의 모습을 띤 붓다의 형상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초인적이고 존엄한 붓다의 자태를 보통사람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음으로 이에 합당한 가시적인 상징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32상 80종호로 이를 바탕으로 초인적이고 존엄한 붓다를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2022 謹賀新年 임인년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회	의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무국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포교원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의전원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0-3595-6522, 010-8939-6522

